

크리스마스 요리문답

- 동정녀 탄생의 신비와 그 유익

김헌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하고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다. 성자 하나님의 칭호를 ‘독생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일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다. 탄생을 말한 후에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넘어가고,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고 행하신 많은 일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탄생과 죽음으로 그분의 지상 생애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의 짧은 고백에서 동정녀 탄생을 한 항목으로 언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19세기에 생물학이 발달하고 과학주의적인 세계관이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동정녀 탄생을 신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성육신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36문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중보자가 주는 유익’의 관점에서 가르친다. 우리의 호기심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려면 참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인간이셔야 함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완전한 사람이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신비’에 속하는 문제이다(딤후 3:16).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과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가르친다.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심 (35문)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使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人性)을 취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문은 성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의 탄생 예고 (프라 안젤리코, 1430-32년 경의 작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인데 왼편에는 가죽옷을 입은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나온다.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고 의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여 돌려주시는 중보자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17문).¹⁾ 또한 그분은 성신의 사역으로 참된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중보자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강조되어 나온다(마

1:18, 20).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신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덮는다'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덮었다]"(창 1:2) 하는 구절에 나오는 말과 같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세상을 덮으시면서 창조자의 일을 하신 것처럼(창 1:2),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성신의 능력이 동정녀를 덮으셔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창조에 참여하셨는데 둘째 아담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동일한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이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잉태되신 것은 새로운

1. C. Olevianus & L. D. Bierma, A Firm Foundation: An Aid to Interpreting the Heidelberg Catechism (Baker, 1995), 49-56.

창조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악의 연대를 끊으려고 성신께서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²⁾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써 첫째 아담과의 연대성은 끊으셨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감정까지도 아울러 취하셨음을 함축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소유하시고, 죄를 제외한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와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땅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눅 2:52). 그것은 모범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이었다.

로마교회와 재세례파의 오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성경과 요리문답은 ‘성신’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함으로써 그 신비를 ‘사람의 편’으로 가져다 놓으려고도 한다. 특히 로마 교회의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마리아 자신도 죄가 없이 잉태되었고 영원한 동정녀이며 육체로 승천하였다고까지 주장한다.³⁾

죄가 없이 무흠한 마리아에게서 남자와의 관계없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리아를 죄가 없는 여인이라고 가르친 구절이 없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도 죄인이었지만,

2. 고재수, 『그리스도를 고백함』 (성약출판사, 2010), 16-18.
3.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1854년에 교의로 택하였고, 1950년에는 마리아가 육체로 승천하였다는 교의를 택하였다. 이제 마리아를 ‘공동의 중보자’(co-mediatrix)로 선언되는 것만 남은 셈이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공적인 교의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사실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 물론 마리아의 신앙에서 배울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마리아 승천 (티티안, 1516-18년 작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그 몸과 영혼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은 성신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사람의 죄와 죄책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셨다.⁴⁾ 이렇듯 강조점은 하나님 편에 놓여야 하며, 그것을 사람의 편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경건의 비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육신의 신비를 그릇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를테면 16세기의 재세례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단지 마리아의 몸

4. 칼빈, 『기독교강요』, 2권 13장 4절. Ursinus,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Eerdmans, 1954), 206.

을 빌어서 태어나셨다고 주장하였다. 마치 공중의 수분이 나뭇잎이나 풀을 만나서 물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세례파의 주장은 육신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성경적이다. 그러한 이원론적 주장을 따르면 우리의 중보자가 지니는 인성이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대한 결격 사항이 생기게 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주는 유익 (36문)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36문은 동정녀 탄생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묻는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신비를 논리적으로 다 해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는 ‘유익’의 관점에서 교훈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신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창조와 섭리를 가르칠 때에도 ‘유익’의 관점에서 질문하였던 것처럼(28문), 요리문답은 동정녀 탄생도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동정녀 탄생을 유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우리가 다 해명해 내려는 태도를 포기하는 선언이며,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만을 겸손히 받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굳이 사람으로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함이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보여 주는 가장 현저한 예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주는 유익을 겸손

히 받을 뿐이다.⁵⁾

중보자의 사역: 잉태에서 무덤까지

36문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됨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로 한정해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 이전의 지상 사역은 십자가를 위한 준비 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물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에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분의 지상 생애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을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이 자칫 우리의 생활 전체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한하고 바르게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잉태하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첫 창조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속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될 때부터 아담의 죄에 참여한다(롬 5:12).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또한 다윗도 자신의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한 죄의 뿌리를 보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하고 고백하였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한 다윗은, 자기의 후손이자 또한 구주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한 자기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시기를 대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 32:1) 하고 노래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죄의 전체성을 보시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죄악의 생애 전

5. C. Venema, What We Believe: An Exposition of the Apostles' Creed, 45-46.

체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중보자로서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거룩하게 잉태되었으며, 그로써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태어나신 우리의 중보자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따라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다.

크리스마스 요리문답

요리문답 14주일은 그 내용상 ‘크리스마스 주일’이라 할 수 있다. 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에는 정작 다른 것이 섞여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기 쉽다. 그러나 지상의 달력과 관계없이 평소에 성경과 요리문답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람으



헤르만 바빙크 (1854-1921)

로 태어나신 일에 대하여 배우고 나아가면, 우리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지 사람이신 분임을 믿고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실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다(갈 4:4-5). 성신으로 잉태되신 중보자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잉태될 때부터 가려 주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고백한다. 마리아는 자신이 성신으로 잉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고 찬송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눅 1:46-48).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앙의 신비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부인되고 만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⁶⁾

하나님의 성육신이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한 세상의 창조와 성자의 성부로부터 나심을 부인하는 자이다. 창조와 성자의 나심을 인정하는 자는 원칙상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성육신하신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6. 헤르만 바빙크, Our Reasonable Faith (Baker, 1977), 325